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 미술의 기법인 '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화면은 거의 entirely black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안에서 미세한 선과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나, 혹은 깊은 바다에 잠겨 있는 생명체와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가는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 언어를 통해, 관람자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름>은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철학과 감정을 담아낸 결과물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넘어서, 깊은 사유와 정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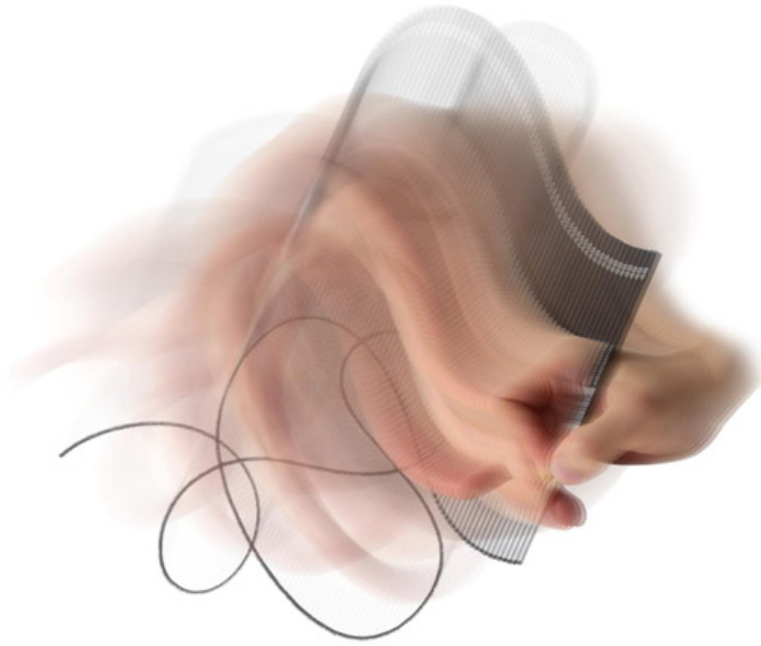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작가가 '인물'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화면은 어둡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물들의 형태는 선묘와 먹의 농담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난다. 이는 마치 고대 동양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인물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질문하는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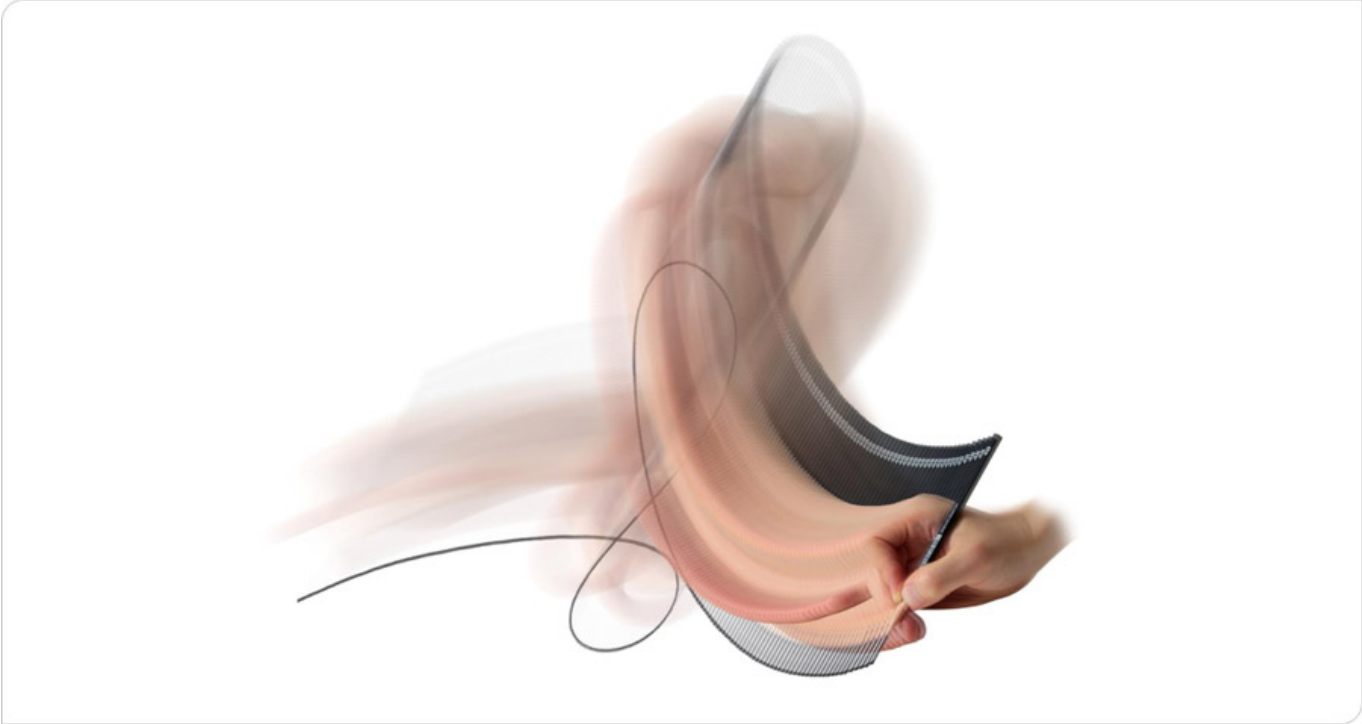
<이름-인물\_70x90cm\_묵화 인물\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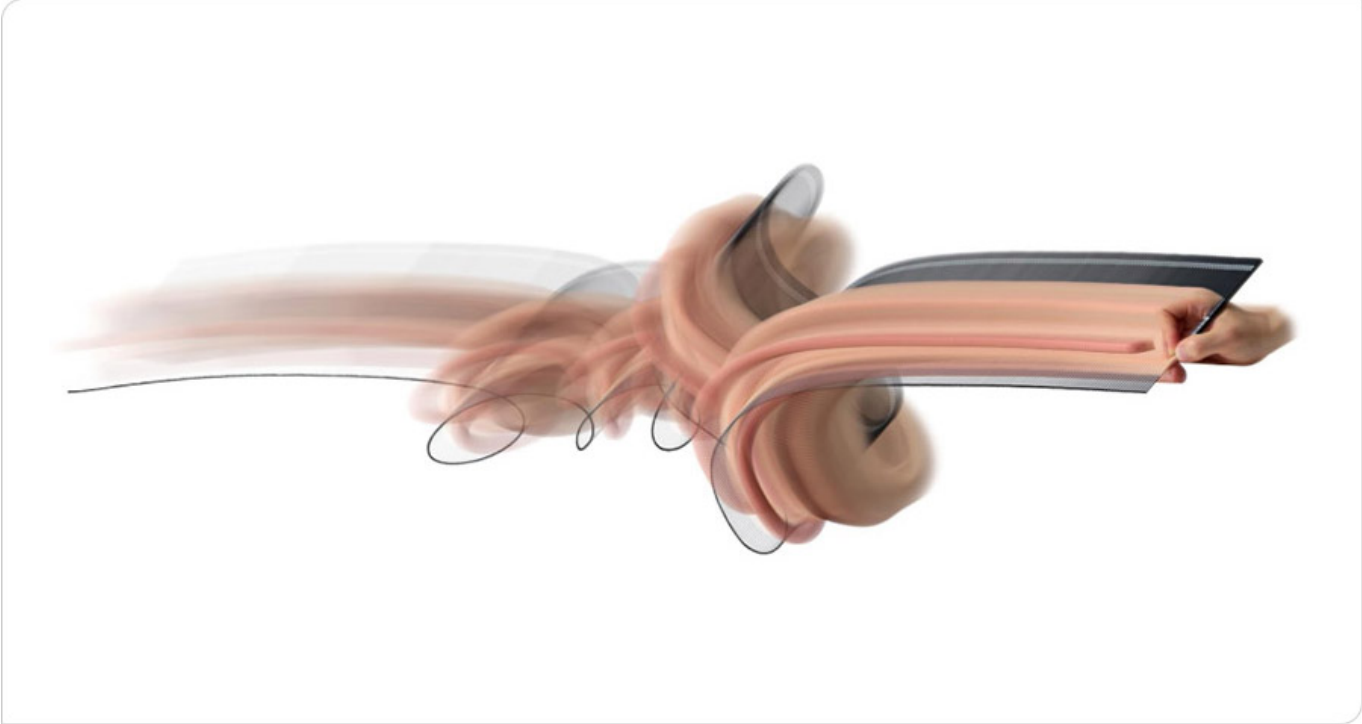
<□□□□□□□□\_49×17×43cm\_PVC, □□\_2015>



<□□□-□□□□□□□□\_85×100cm\_□□□□ □□□\_2015>



<□□□-□□□□□□□□\_95×115cm\_□□□□ □□□\_2015>



<□□□-□□□□□□□□□□□□□□\_120×360cm\_□□□□ □□□\_2015>

□□□□

